

2016년도 원로연극제 주관처공모 심사평

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.

심사평

- 일시 : 2016. 03. 14.(수), 14:00~15:00
- 장소 : 대학로예술극장 리딩룸 1
- 심의위원 : 김승국, 박계배, 박두현, 안호상, 이은경(가나다 순)

2016년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심의에는 협회 2개, 단체 2개, 기획사 4개 등 총 8개가 신청하였고, 이 중 1개 단체가 선정되었다.

심의과정은 단체들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검토 후, 이를 바탕으로 5인의 심의위원들이 함께 모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.

심의는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(50%)과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(50%)을 기준으로 했으며, 원로연극제의 전체 사업 방향성, 참여 원로연극인, 참여 작품, 공연단 구성 등 주요내용은 원로연극제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고, 주관처의 역할은 주로 행정 지원이 중심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.

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원로연극제가 대표 원로연극인들의 업적을 기리고, 범연극계의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.

2016년 원로연극제 주관처공모 심의위원 일동